

500만 관광도시 조성 속도

익산시, 포스트코로나 대비 야외 프로그램 적극 개발 생태힐링 공간도 조성... 관광객 증가 등 빠른 회복세

익산시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고 500만 관광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높인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관광객은 국립익산박물관 개관 등으로 1월 27만19천568명까지 상승했다가 코로나 19 여파로 후반기에 들어간 2월 21일부터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이는 지역 관광객이 박물관 등 실내에 집중된 데 따른 현상으로 지난 5월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으로 시설이 재개관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용포캠핑장은 재개관 이후 조기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교도소세트장도 관광객이 매주 100명씩 증가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상당포구마을은 5월 한 달간 방문객이 1,651명으로 1월에서 4월까지 합한 인원 1천653명에 이르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그동안 실내관광지에 집중돼 있던 관광정책을 전환해 야외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생태힐링 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20억원을 투입해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화석전시관을 리뉴얼하고 스

카이워크와 각종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어 상당포구 비람개비길은 주요 지점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재정비해 20~30대 관광객들의 인생사진 촬영 명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습지관찰대와 철새전망대 등이 있는 용안생태습지는 전체적인 정비와 함께 다양한 꽃을 식재해 상당포구 비람개비길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금강의 그림 같은 낙조를 즐길 수 있는 용포캠핑장은 방문객들에게 낭만적인 밤을 제공하기 위해 주변 정비가 한창이다. 이미 지난해 조성된 용포곰개나루의 벽천폭포, 어린이 물놀이시설인 워터드림, 안개분수, 포토존



상당포구 비람개비길은 주요 지점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재정비해 20~30대 관광객들의 인생사진 촬영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조형물 등은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습장소라는 인식이 강했던 박물관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일상에서 시민들이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되고 있다.

시는 국립익산박물관과 왕궁리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을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일상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매주 주말 '박물관을 품은 마루사자', '보요아리상설공연', '가족소풍' 등 역사와 음악 체험이 가미된 다양한 공연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익산시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겠다"며 "시민 모두가 지역의 관광 홍보대사로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익산시가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트리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관공공사 입찰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시에 부실시공 등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설한 건설 환경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익산시가 발주하는 전문공사 입찰공고시 국제청 표준재무제표 건설공사대장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계과는 개찰 후 전문공

사 면허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에 1순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문제가 되는 업체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 협회 등에도 공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시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시범 실시한 후 효과를 파악해 단속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관공공사 수주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완전히 근절해 시민들의 형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종합민원상담실 15일부터 운영 재개

군산시는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을 1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하는 민원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왔으나,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과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을 중단해 왔다.

현재 군산지역은 아직도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는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19가 진정되고있으며 시에서는 장기간 운영 중단으로 적체돼 있는 상담수요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시, 초등돌봄교실 과외 간식 무상 지원

익산시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올해에도 과외 간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게 됐다.

9일 시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 과외간식 무상지원 사업에 약 1억3,700만원을 투입해 10일부터 관내 80개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2,258명을 대상으로 과외 간식을 제공한다. 다양한 제철 과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컵이나 파우치 등 신선편이 형태로 제공하며, 학생 1인당 1회에 150g 내외로 연간 30회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전 고시한 HACCP(안전관리) 인증 작위 업체 중 공모 심사를 거쳐 '익산원예농협'을 공급 업체로 선정, 지역 내 과수농가들의 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기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선하고 맛있는 과외간식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어청도·연도지역 정주여건 개선 행정력 집중

강임준 시장, 현지방문·주민 애로사항 청취

군산시가 도내 최원거리 영해기점 도시인 어청도와 인접 연도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는 강임준 시장이 도내 최원거리 영해기점인 어청도 등 도서현지를 방문해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주요사업 현장을 살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어청도 지역의 주요사업으로는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2억원을 들여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총 56억원을 투입해 금년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6억5천만원 규모의 다목적 체육시설을 금년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어민소득이 날로 감소하면서 생활고가 어려워지고 있어 수산지원 조성을 위해 어청도 연도해역에 인공어초 및 해중립 사업을 지속 추진중으로 고부가가치 해산 수산물 조성사업으로 작년도 연

도해역 18억원, 금년도 어청도 해역에 18억원을 투자해 어민소득을 높이고자 추진중이다. 특히 주민 최대 숙원사업인 '노후여객선 대체전조 사업'으로 국비 60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설계중으로 내년도 신조여객선이 투입될 예정으로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현재 운항 중인 어청해리호의 노후화로 결항일수가 잦고 1일 1회 운항으로 1일 생활권이 안돼 지속적으로 여객선 교체를 요구했으나 선정미진(20년이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민선7기 들어 군산해양수산청과 역점적으로 추진해 금년도 '국내최초'로 알미늄 고속차도선 여객선 건조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1일 2회운항이 가능해 현재보다 두 배 큰 규모의 최신식 여객선이 투입돼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어촌관광화로 획기적인 섬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관광음식점 시설개선 최대 6000만원 지원

군산시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와 편의제공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관광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주요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으로 좌식 식탁 40석 이상을 일식으로 리모델링하고 관광진흥법상 관광식당으로 등록하는 조건이며 40~79석 이하 식탁 교체 음식점은 최대 4,200만원, 80석 이상 식탁 교체 음식점은 최대 6,000만원까지 사업비의 60%를 차등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테이블 교체를 포함해 홀, 주방, 화장실 시설개선이며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보조적으로 집기류, 홈페이지, 메뉴판 등을 제작할 수 있다.

관광식당 지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하고 음식 이름과 관련 정보가

포함된 한 개 외국어 이상의 메뉴판을 구비해야 하며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여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음식점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오는 19일까지 군산시 관광진흥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들에게 영업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는 동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경쟁력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광민족도를 높이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근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